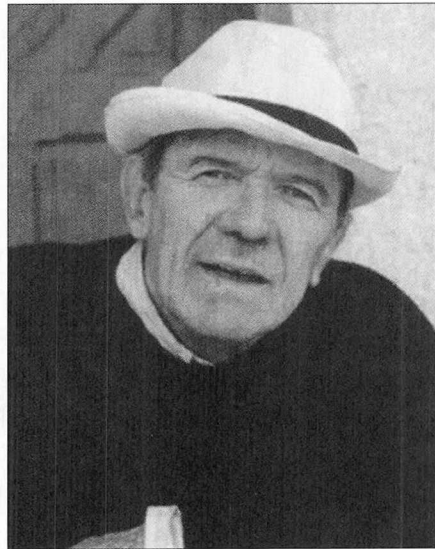


세계 자체를 사유한 욕망의 철학자

'사물'의 철학자 들뢰즈와의 대화

이정우

이화여대 철학과 강사



"내 사유는 결국 사건과 욕망의 철학입니다. 사건의 존재론은 니체, 베르그송의 생성철학과 구조주의적 의미론을 통합한 것입니다. 욕망은 권력의 원질료죠. 권력으로만 세계를 바라보면, 권력의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또 권력을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놓치게 되죠."

들뢰즈.

죽은 자에게는 차이가 없다. 산 자에게 무 차이가 있을 수 없듯이. 그러나 무차이와 차이의 차이를 긍정할 때, 삶과 죽음은 동일한 지평 위에 놓인다. 이 지평 위에서 산 자와 죽은 자의 대화가 가능하다. 비록 그 대화를 기록하는 것이 산 자의 몫이라 해도.

철학은 개념의 창조

이정우—선생님께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들뢰즈—철학이란 개념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정우—그렇다면 많은 개념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들뢰즈—아닙니다. 개념의 질이 문제겠지요.

이정우—어떤 개념이 뛰어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들뢰즈—사람들이 그 개념을 사용할 필요를 느끼는 개념이 좋은 개념이죠. 예컨대 저와 가타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한 특정 태도를 '노마돌로지'라고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 개념은 성공한 개념이죠.

이정우—선생님의 저작들 가운데 개념창조라는 점에서 가장 다산적(多産的)인 저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들뢰즈—가타리와 함께 쓴 《천 개의 마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저작에서 여러

가지 개념을 실험했고, 이 실험이 최근에 문화의 각종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우—프랑스 철학자로서는 특이하게, 선생님께서는 철학사 연구에 몰두하셨습니다. 선생님께 철학사 연구는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들뢰즈—나는 철학사에서 나를 매료시킨 개념들을 끄집어냈습니다. 한 철학자가 사용한 개념을 그 철학자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밀고나가 내 사유를 위한 개념으로 재탄생시키곤 했죠. 스토아 철학에서의 '사건', 둔스 스코투스의 '이것임', 스피노자의 '표현', 라이프니츠의 '주름', 흄의 '주체성', 니체의 '욕망', 베르그송의 '차이' 등이죠. 부정적인 맥락에서는 플라톤의 '시물라크르', 칸트의 '공통감각' 등이 있습니다.

이정우—선생님께서 철학사를 쓰실 때 가지는 어떤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들뢰즈—저의 원칙은 긍정입니다. 나는 어떤 철학자를 슬프게 하거나, 그가 죽었을 경우 무덤에서라도 울게 만들 철학사는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의 개념이나 생각을 그 철학자로서도 거의 생각 못했을 정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내 원칙입니다.

이정우—그 점에서 데리다 선생님과는 차이가 있군요?

들뢰즈—데리다와 스타일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큰 차이가 있다

고 보지는 않습니다.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는 무엇인가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것의 그늘에 가려 있던 것을 양지로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점에서 나의 작업과 유사하죠. 다만 데리다는 하이데거의 후계자이지만, 나는 베르그송의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철학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정우—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인가요?

들뢰즈—한마디로 하이데거와 데리다는 '텍스트'의 철학자이고, 베르그송과 나는 '사물'의 철학자입니다. 베르그송과 나는 세계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죠. 하이데거나 데리다처럼 텍스트에 갇힌 사변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철학 바깥의 사유

이정우—선생님께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들뢰즈—문학과 철학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모두 사유일 뿐이죠. 스타일이 다를 뿐입니다. 예컨대 내가 쓴 프루스트론은 칸트론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베케트론이나 보르헤스론 등은 라이프니츠론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정우—선생님께서 유럽 대륙의 문학보다는 영미의 문학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요?

들뢰즈—대륙의 문학이 비교적 추상적이고 관념적인데 반해, 영미의 문학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정우—《의미의 논리》를 쓰시게 된 맥락은 무엇입니까?

들뢰즈—나는 학위 논문으로 《차이와 반복》(주논문),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부논문)를 썼습니다. 이 책들을 통해 그동안 몰두했던 철학사 연구를 일단락지었죠. 그러고 나서 나는 어떻게 '철학 바깥'으로 나갈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내 철학사 연구 자체가 기존의 철학사 연구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본격적으로 철학 바깥으로 나가 그 동안 이론 내 철학을 살찌우고 싶었습니다. 그 첫번째 시도가 《의미의 논리》죠. 그래서 푸코에게 《지식의 고고학》이 그렇듯이, 이 책은 내 사유의 허리에 위치해 있는 저작입니다.

이정우—가타리를 만나게 된 것도 그런 맥

락에서군요?

들뢰즈—그렇습니다. 가타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안티오이디푸스》와 《천 개의 마루》를 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내 철학의 세계는 훨씬 줄어들었겠죠. 이 책에 들어 있는 다양한 실증적 지식은 가타리 덕분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분석학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가타리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미의 논리》에서 정신분석학을 적극적으로 선용(善用)했는데, 《안티오이디푸스》에 가면 급격하게 바뀌죠? 이것은 가타리의 영향입니다.

이정우—선생님 자신도 그렇지만, 흔히 푸코의 철학을 정리할 때 담론·권력·주체라는 세 개념을 가지고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들뢰즈—글쎄요. '정리'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한다면 내 사유는 결국 사건과 욕망의 철학입니다. 나 혼자 쓴 저작들은 주로 사건을 다루고 있고, 가타리와 같이 쓴 저작들은 욕망을 다루고 있죠.

이정우—사건 개념에 몰두하게 된 맥락은 무엇입니까?

들뢰즈—내 사유는 기본적으로 니체와 베르그송 이후의 생성철학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의 개념을 자연철학적으로 또는 형이상학적으로만 다룬다면, 우리는 생성이 함축하는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생성은 동시에 의미발생이기도 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자연적 운동이 "가을이 되었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해야겠다" 등의 의미를 동반하는 것이죠.

반대로 구조주의는 의미를 파악했지만 생성을 놓쳤습니다. 구조의 요소들을 생성으로 파악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건의 존재론은 니체, 베르그송의 생성철학과 구조주의적 의미론을 통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우—욕망은 권력과 어떻게 다릅니까?

들뢰즈—권력은 구체화된 욕망입니다. 욕망은 권력의 원질료(原質料)죠. 권력으로만 세계를 바라보면, 권력의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또 권력을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놓치게 되죠. 푸코의 사유가 너무 비판적으로 흐른 것도 이것과 관련됩니다. 푸코와 달리, 나는 긍정의 철학자입니다.

책과 교과장

박시백

“흔히 푸코의 철학을 정리할 때 담론·권력·주체라는 세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정우.

사건과 욕망의 사유

이정우—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께 매료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들뢰즈—내 입으로 말하기는 쑥스러운 질문이군요. 굳이 말하라면, 철학사의 광범위하고 독특한 독해, 후기 자본주의의 현실을 독특하게 개념화한 점(물론 이것은 가타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희망 차고 건설적인 색채 등이겠죠.
 이정우—선생님께서 왜 자살하셨습니까?
 들뢰즈—자살이란 내게 주어진 운명에 나 스스로를 동일시하는(s'identifier 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스토이즘이죠. 내 철학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이정우—선생님께서 선불교에 이끌린 것도 그 때문이군요.
 들뢰즈—그렇습니다. 나는 선불교적인 의식에 무한히 매료되었습니다. 나의 자살도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정우—일본과 한국에서는 선생님 사유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유가 앞으로 동서 사유가 하나로 통합되는 데 촉매역할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들뢰즈—사실 동양의 사유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사유와 도가(道家)의 사유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앞으로 젊은 사상가들이 그런 작업을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정우—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들뢰즈—선택하기보다는 창조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들뢰즈의 사유는 동서 사유가 통합해 21세기를 사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들뢰즈를 사랑하면서 또 그를 넘어서기 위해 애쓰면서 밤을 지새고 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지배하는 법. ❖

<들뢰즈 관련서>

책	저자	출판사
감각의 논리	질 들뢰즈	민음사
니체, 철학의 주사위	질 들뢰즈	인간사랑
대담(1972~1990)	질 들뢰즈	솔
매저키즘	질 들뢰즈	인간사랑
소수 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 카프카론	들뢰즈 외	문화과지성사
영화1	질 들뢰즈	새길
칸트의 비판철학	질 들뢰즈	민음사
베르그송주의	질 들뢰즈	문화과지성사
들뢰즈와 가타리	로널드보그	새길
들뢰즈와 영화	박성수	문화과학사
들뢰즈의 철학사상	마이클 하트	갈무리
시뮬라크르의 시대	이정우	거름

오과장 친구 박선생.

그는 틈만 생기면 책을 본다.

문학, 인문학, 사회과학에 자연과학까지.

오과장

그도 가끔씩은 책을 본다.

그리고,

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까지. ... 신문에 난 책 소개 기사들을 가리지 않고 챙긴다.

둘이 술자리를 가졌다 하면

수준 높게도(!) 책과 관련한 대화, 논쟁이 흔히 목격 되는데

잠, 그책의 골자는 그게 아냐.

! ... 백전백승 오과장!

어때? 내 판단이,